가을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가꾸어 놓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한 삶은 이러한 풍요로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

1절 하반 절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5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도, 산들도, 바다도, 육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경배 드립니다. (6절)

6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즉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거나 조상들을 생각한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 삶에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지기쁨의교회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1번길 29
www.joyplus.or.kr ☏ 031)898-4524

[예 배 순 서]

묵　　도 ..... 시편 46편 1~3절 ..... 다 같 이

찬　　송 ..... 559장(통305)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대표기도 .....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봉독 ..... 시편 95편 1~6절 ..... 인 도 자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설　　교 ..... 『 하나님께 감사하라 』 ..... 가족 대표

합심기도 .....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 다 같 이
<선조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주기도문 ..... 다 같 이

교　　제 .....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함 ..... 다 같 이

[예 배 안 내 문]

1.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2. 추석명절 가족예배는
-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하나님 앞에서
-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의 생전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 유족들간의 위로와 친교를 통해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삼고자
-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3. 예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① **향이나 촛불은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② 선조의 삶과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
③ 가족이 한 상에 함께 둘러 앉으며,
가족이 많으면 인도자 앞에 예배상을 준비합니다.
④ 본 예배 안내지의 **예배 순서 부분을 복사하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⑤ 가족들이 성경봉독이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⑥ 대표기도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가족에게 요청합니다.

4.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 선조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는 일
* 선조들에게 절을 하는 일
*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

5. 합심기도는 가정의 신앙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6.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